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완도 호랑가시나무와 어떤 과도기

내게는 식물 책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 지난달 책장을 정리하다 우리나라 1세대 식물학자인 장형두 선생의 책 '학생 조선 식물 도보' (1948년)를 발견했다. 장형두 선생은 해방 이후 펴낸 이 책 속 모든 글을 우리말로 썼다. 식물은 문사리, 학명을 갈 이름으로. 그렇게 일본말을 완전히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국명과 일본명 맞대보기' 장이 있다. 선생은 이 장 쪽지에 이렇게 일러두었다. '일본명을 여기에 쓴 것은 아직까지 일본 말 참고서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비추어 똑바른 우리말 이름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과도기적 조치다.'

나는 '과도기적 조치'라는 말을 되뇌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내가 그리는 그림이 '식물 세밀화'라는 용어로 알맞지 않지만 선생의 말씀처럼 과도기적 조치로 현재 '식물 세밀화'와 '식물학 일러스트'를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과도기를 살아가기에 해야 하는 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내 명함에는 두 개의 직업명이 적혀 있다. 식물 세밀화가 그리고 식물학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의미인 두 용어를 굳이 나란히 써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의 원어는 보태니컬 일러스트레이션, 해석하면 식물학 그림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식물 세밀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보태니컬 일러스트 용어에 '세밀'이라는 의미를 포함시킨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세밀'이란 극사실 그림, 기술적인

재현의 그림을 떠올리게 하기에 식물 해부도로서 식물 종의 형태적 특성을 드러내는 내 그림에 식물 세밀화라는 용어는 알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영역의 과학 일러스트인 의학 일러스트처럼 식물학 그림, 식물학 일러스트라는 용어가 알맞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식물 세밀화라는 용어를 아예 쓰고 싶지 않지만,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미 쓰여 온 용어를 그냥 쓰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이전의 역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는 지금 식물 세밀화와 식물학 일러스트를 함께 쓰고 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과도기적 조치이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식물 세밀화 대신 식물학 일러스트 혹은 식물학 그림이라는 용어를 쓰기 바란다.

며칠 전 동기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여수에 갔다가 식당 골목에서 한창 뽀족한 잎을 매단 호랑가시나무를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완도 호랑가시나무로 보이는 개체도 있었다. 완도 호랑가시나무는 천리포수목원의 설립자인 민병갈 원장이 1978년 완도에 식물 탐사를 갔다가 발견한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의 자연 교잡종이다. 완도 호랑가시나무는 호랑가시나무에 비해 잎이 둥글고 잎 가장자리 가시의 뽀족함도 완만하다.

민병갈 원장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귀화했다. 그는 충남 천리포 바다 앞의 땅을 사서 정원을 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외국 식물을 정원에 심어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에도 관심이 많

았다. 1970-1980년 당시 화훼식물을 연구했던 어르신 선생님들의 말씀으로는 지금이야 천리포수목원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처음 그곳을 조성할 때만 해도 관상 식물을 위한 정원을 꾸리는 것은 사치로 여겨졌다고 한다. 해방 이후 먹고살기도 힘든데 꽃은 무슨 꽃이라는 소리를 매일 듣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시대를 지나 이제 천리포수목원은 전국의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우리는 50여 년 전의 민병갈 원장처럼 곳곳에 크고 작은 정원을 만들고 있다. 민병갈 원장은 화훼식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우리나라 식물연구, 문화 과도기를 몸소 지나온 분이다.

그가 특별히 좋아했던 호랑가시나무 가족은 흔히 홀리라고 불리며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호랑가시나무는 우리에게 늘 붉은 열매를 가지에 가득 매단 이미지로 익숙하다. 그러나 내가 여수에서 본 이 식물들은 지금 노란 열매를 매달고 있었다. 이 열매는 이제 검붉은 노란색, 붉은빛이 섞인 주황색 그리고 어두운 붉은색처럼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려운 빛깔을 지나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빨간색 열매가 될 것이다.

식물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식물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완도 호랑가시나무의 붉은 열매 그리고 벌개미취의 개화처럼 내 눈앞에 놓인 자연현상이란 각자가 수없이 지나온 과도기의 결과라는 것을, 식물을 관찰하며 깨닫는다.

의료칼럼

중년 남성의 적, 전립선 비대증



김종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다. 전립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대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립선 비대증 전체 환자 중 약 95%가 50대 이상이라고 조사됐다.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서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노화의 과정에서 전립선이 조금씩 커지고,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되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차에 따라 발현 시기와 증상 정도의 차이는 있다.

전립선비대증은 배뇨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 때문에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변 줄기가 약하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배뇨 증상, 소변을 잘 저장하지 못해 화장실을 자주 가는 저장 증상, 소변을 다 보고 마무리를 했음에도 속옷으로 소변이 나오는 배뇨 후 증상 등이 같은 증상들을 겪고 있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야 한다.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될 때는 치료에 앞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전립선을 직접 만져서 진단하는 직장 수치 검사를 비롯하여 전립선 초음파, 요류 검사, 잔뇨 초음파 등을 통해 질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전립선 초음파를 시행한다. 항문으로 가느다란 초음파 기기를 삽입, 초음파 상에 나타나는 이상 소견들을 발견해 전립선의 전체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소변이 나오는 속도를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요류 검사와 배뇨 후 잔뇨 양을 파악하는 잔뇨 초음파 검사가 있다.

검사를 통해 전립선 비대증을 확인했다면 초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전립선 비대증이 생명을

위협하는 양상 질환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할 경우 방광 기능 저하, 신장 기능 감소, 요로 감염, 방광 결석, 혈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법은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약물 치료는 전립선 비대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요도의 증상을 개선해 주고, 전립선 내 존재하는 DHT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전립선 크기를 기존의 20~30%로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중증 혹은 고도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라면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다. 경요도 수술은 하반신 마취를 통해 통증을 없애고, 요도를 막고 있는 전립선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로 문제가 되는 전립선을 직접 제거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우수한 치료법이다.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이후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만큼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검진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화장실 이용이 불편해지는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정확한 검사와 함께 초기에 치료받아야 한다.

전립선 비대증 예방법은 따로 없다. 금연과 금주, 생활 개선 등으로 위험 인자를 예방하는 자체가 필요하며, 50대 이상은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한편 라이코펜이라는 좋은 성분을 보유한 토마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도 이소플라빈이라는 단백질이 전립선 비대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자주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 식생활 습관은 고지방 식보다는 채소 위주 식단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기고

활력 넘치는 광주를 그리며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

경상권(9.9%) 등 타 지역 비중에서 보듯이 복합쇼핑몰 유치는 지자체간 경쟁적 이슈인이 분명해졌다. 광주공동체의 '풍요롭고 더 큰 공유 가치의 창출과 가치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사람이 힘이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다.

무엇보다도 복합쇼핑몰 유치로 대변되는 도시 활력 제고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도시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광주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소상공인 보호 등 기존 시장 질서에 변화를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논의의 구조와 틀 안에서 소상공인과 학생 방학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고려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며, 복합쇼핑몰에 대한 모든 의견은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활력 행정협의체에서 함께 광주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답을 찾아내려 한다. 모든 시민들이 응원군이 되고 감시자가 되어 준다면 복합쇼핑몰 유치는 '꿀잼 광주의 관광 지도를 바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복합쇼핑몰 유치는 도시 이용 인구 3000만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수단이며, 더불어 광주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스토리의 구슬을 꿰어내는 신활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면 꿈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먼저 광주비엔날레와 축제 등 문화예술 자원, 무등산과 가사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 자원, 망월동-양림동을 근간으로 한 가치지향 자원, 아시아문화전당(ACC)과

전일빌딩245-동명동 등 도시기반 자원, 새로운 영산강 시대 도래와 더불어 영산강-황룡강-광주천 등 강(물)과 연계된 자원을 엮어서 관광자원화할 것이다.

또한 근대 기독교 문화유적이 대명제에 있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은 내년부터 시즌2 기획에 들어간다. 기독교인들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도보여행'을 통해 치유와 사색을 하듯이 양림동을 1천만 국내 기독교인들이 찾는 성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상무소작장은 광주 대표 도서관과 복합 문화시설로 재탄생되어 광주의 문화적 가치와 품격을 높일 것이며 미디어아트도 광주를 야간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26년 제2센터 개관과 함께 국제 마이스(MICE) 도시 조성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여기에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영산강-황룡강변 역사이팅벨트(Y벨트), 광주천 생태힐링 벨트, 광주송정역 활력 벨트, 광주역 창업 벨트, 효천역 디지털콘텐츠 벨트 등 5대 신활력 벨트가 조성되면 권역 곳곳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에서 "시너지란 전체가 각 부분들의 합보다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1+1이 2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고, 전체의 힘이 누적 확대되는 개념으로 본다. 민선 8기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하고 신선한 전략적 신활력 정책 메뉴를 통해서 광주를 바꾸는 무한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사람이 넘실대는 광주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시대를 향해 큰 발을 거침없이 내딛고자 한다.

社說

'균형 발전' 시금석 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광주시와 전남도가 '반도체 특화단지' 공동 조성을 위한 공식 추진 기구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동을 건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제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정성택 전남대 총장, 김중갑 전하이닉스 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20여 명으로 구성된 추진 위원회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기업 유치 방안 및 정책 수립,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한다.

시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 윤 대통령의 광주 지역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균형 발전 공약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AI와 전력, 자동차 등 주력 산업과 연계한 반도체 특화단지를 접경 지역에 공동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시합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어 상황은 녹록치 않다. 대전과 대구·경북, 강원, 인천 등 서울을 빼고는 뛰어난 지역이 없을 정도다. 더욱이 특화단지 지정 시 '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이 어제 광주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공지능 대표 도시인 광주가 한국의 실리콘 벨리로 거듭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는 점이다. 내일까지 지정되는 오는 11월까지 수요 조사를 거쳐 이르면 연내 지정된다. 이는 현 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첨단 전략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

다중 이용 지하시설 안전 대책 강화해야

엇그제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일곱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지하시설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각이 오전 7시 45분께로 아울렛이 문을 열기 전이라 이용객들의 피해는 없었지만 불꽃이 인치 20-30초 사이에 여덟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시설 조차 이 정도이니 다른 영세한 건물의 지하 시설 화재 안전관리는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능하다. 주차장 등 지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기가 잘 안되면 공기가 부족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독성이 강한 일산화탄소로 인해 짧은 시간에 질식사도 이어진다. 또한 열과 연기가 잘 배출되지 않아 실내에 쌓이는 데다 파란 경로가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는 점도 지하시설이 위험한 이유다. 화재가 발생하면 정전으로 이어지는데 빛이 없는 지하시설의 경우 파란

방향을 찾지 못해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해마다 30여 건의 지하시설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형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전처럼 다중이 모이는 대형 시설에서 발생할 경우 언제든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요즘처럼 전기차가 늘어나고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각별한 화재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전기차의 경우 대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불이 나면 물로는 끌 수 없고 방화전으로 공기 유입을 차단해야 할 정도로 화재 진압이 어렵다.

때마침 광주시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22개 대형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 내일까지 전기차 충전 및 전기 시설 유지 관리 상태, 소화·방화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검증하고 안전 대책을 보강함으로써 미연의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요즘 달러 가치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다. 지난 1월 0.25%였던 미 금리는 8개월 만에 3.25%로 뛰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2.50%)를 역전해 달러가 미국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1달러가 1400원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비상이다. 달러가운데 가장 고액권인 100달러 지폐에

워싱턴의 식민지군이 프랑스군에 패하자 분열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0년 10월 27일 평양 탈환 환영 시민대회에서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018년부터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이후 호남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했던 광주, 전남, 전북이 자주 '소지역주의'에 매몰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민선 7기 광주·전남이 서로 경쟁하며 쓰라림을 겪은 데 이어 이번에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소식이야. 인구·경쟁률과 개발된다.

몽치면 살고

특히 프랭클린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업적을 쌓았다. 인쇄공 출신으로 자수성가해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하고 미국 헌법의 초안을 만들었다. 그는 역사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화려한 연명으로 주위를 설득하고 갈등을 정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실전이 말보다 낫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고통 없는 이익은 없다" 등 셀 수도 없다. 이 가운데 "몽치라, 아니면 죽는다"(Join, or Die)도 있다. 이 말은 1754년 5월 조지

데 이어 이번에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소식이야. 인구·경쟁률과 개발된다.

창에 크게 뒤쳐진 호남이 쫓겨서 서로의 이익을 '쟁투'한다는 의미다. 해방 이후 계속 쪼그라들기만 했던 이 지역에서 광주·전남은 더 쟁쟁해지고 있고, 전북은 그로 인해 서운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상호 인정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역사에서 증명됐듯 분열은 필패로 가는 길이다. 광주·전남이 전북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호남 부흥을 꾀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